

“지역경제 활력 회복 시급하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거시경제 지표는 견고
고용민생 지표엔 어려움
지역 어려움 해결없이
포용적 성장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민들이 경제성장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활력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힌 뒤, “경제성장률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인인 소상공인의 말씀을 듣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 전국 경제 투자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10월엔 전복, 11월엔 경복을 방문했고, 곧 경남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는 기존의 산업 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산·학·연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며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지역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노력이 적극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프라, 제조업 고도화, 스마트화 등 정부가 지원할 것은 적극 지원하고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주기 바란다”며 “행정과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로부터 지역 활력을 알리는 힘찬 출발이 시작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표들이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

이 체감하는 고용·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극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다. 조선·자동차·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이 위기를 맞은 지역은 더욱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세종청사에서 처음 주재하는 국무회의라는 것을 언급하며 “참여정부 시절 구상했던 세종시가 이렇게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것을 보니 저로서는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이기도 하다. 오늘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청사에서 근무

하며 헌신하는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 특별히 치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보화, 지방화, 4차 혁명 시대의 행정에서 장소와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전자정부 체계와 화상회의 등으로 얼마든지 소통과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도 국무회의 정도가 화상회의 정도로 이뤄지고 있을 뿐 많은 회의에서 화상회의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어서 아쉽다”며 “많은 공무원들이 회의, 국회 출석을 위해 세종과 서울 오가며 시간을 허비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 장관들이 사무실에 상주하는 시간이 적어 행정 효율 떨어

진다는 지적도 있다”며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임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국무조정실장이 아닌 바뀐 신분으로 처음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잘해왔는데 경제부총리로서도 기대가 매우 크다”며 “김동연 전임 부총리가 열정적으로 잘해줬지만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가 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 사령탑으로서 경제에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국무위원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어린이건강식생활체험관 개소

전주대학교가 11일, 예술관 별관 1층에 위치한 전주시 원신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건강식생활체험관' 개소 및 현판식을 진행했다.

탄소융복합산업 성장 주도... 전북도 탄소산업발전위 개최

전북도는 11일 도청에서 전북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최정호 정무부지사)를 개최해 위원회 산하 3개 분과에서 올해 1년간 발굴한 11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위원장인 최정호 정무부지사를 비롯하여 국내 탄소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관련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위원회 산하 3개 분과(상용화추진분과, 생태계고도화분

과, 창업인력양성분과)에서 지난 1년 동안 발굴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정책과제 발굴성과와 앞으로 사업화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들 3개 분과는 그동안 분야별로 전북 탄소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큰 틀의 정책과제 발굴 및 기회를 위해 매월 두세 차례의 기획회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총 11개의 정책과제를 발

굴,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 성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각 분과는 발굴과제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리개발과 타당성 확보 등 정책과제의 완성도를 높여 국가정책화 또는 도 사업으로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주요 과제들은 전북 탄소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 탄소기술 상용화기반 강화,

창업, 인력양성 등의 정책과제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위원장인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탄소소재법 제정과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탄소산업이 반영된 데 이어 내년에는 중앙부처 내 탄소전담 부서가 설립되는 등 탄소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국가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만큼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정부에 제공해서 최대한 국가정책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탄소산업발전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족구협회와 업무협약

태권도원 견학 병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대한민족족구협회(회장 박상순, 이하 KIA)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일,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회의실에서는 재단 이상욱 이사장과 KIA 박상순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 기여’를 비롯해, KIA 심판 강화 훈련 및 지도자 교육 시 태권도원 이용, 태권도원 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KIA 측의 각종 교육과 행사, 족구 저변 확대 등에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의 시설과 여건 등이 도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태권도원을 방문한 KIA 박상순 회장은 “국기 태권도의 진흥·보급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족구협회 소속 심판과 선수들이 태권도원을 찾아 기량을 갈고닦는 등 더욱 높은 수준의 족구를 통해 엘리트 스포츠이자 생활체육으로서 저변을 넓혀가는데 재단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17개 시도 지부에 1천2백여 명의 심판·지도자, 5백여 등록팀이 소속된 대한민국족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태권도와 태권도원을 족구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족구협회 소속 심판·지도자·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비롯한 심심단련에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박상순 회장 등 KIA 임직원들은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태권도 시범공연 관람 등 태권도원을 견학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 해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도, 전북 수출·투자유공의 날 행사 개최

‘수출 6개부문’ 태광정밀화학 등 6곳

‘투자부문’ 내국인 대주코레스 등 2곳 선정

전북지역 수출기업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제2회 전라북도 수출 및 투자유공의 날’ 행사가 11일 전주르원호텔에서 개최됐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주관한 ‘제2회 전북 수출 및 투자유공의 날’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 송성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수출 유관 기관장과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지난 달 5일 ‘수출 및 투자유공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군 및 수출 유관기관장이 추천한 기업 17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6개부문과 투자 2개 부문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태광정밀화학 등 8개 기업을 2018년 수출 및 투자 유공업체로 선정했다.

수출 분야에서는 수출 최우수 분야 ‘태광정밀화학(주)’, 해외시장 다변화

분야 ‘(주)케이에스아이’, 처음수출 분야 ‘(주)우성이앤에스’, 수출성장 우수 분야 ‘천지연 농업회사법인(유)’,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수출우수 분야 ‘농업회사법인 ㈜한우물’, 벤처기업 수출 우수 분야 ‘(주)필로시스’ 등 6개사가 선정됐다.

투자부문에서는 내국인투자 우수 ‘대주코레스(주)’와 외국인투자 우수 ‘로알캐논코리아(유)’ 등 2개사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수출 성과를 올려 전북 경제에 희망을 안겨준 기업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거점 지역에 통상거점센터를 개설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도내 전북기업들이 계속해서 수출 신화를 써나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미숙(1966. 3. 20.생 2018. 8. 21.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구남선 사법보좌관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8-단1192 상속한정승인 사법보좌관 구남선

▶피상속인: 망 김미숙(1966. 3. 20.생 2018. 8. 21. 사망)

최후주조: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상1길 28(후정리)

▶공고인: 윤영례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18. 11. 21.

▶공고기간: 2018. 12. 12. ~ 2019. 2. 11.

▶주소: (청구대리인 김운영의 송달장소)

전주시덕진구 들사평1길9

(덕진동 1가, 스카이블루빌)

101호 한울법무사사무소

010-3708-781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 창간 10년을 축하합니다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